



# 자원 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

-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몽골, 울란바토르)
-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 조성사업(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외교부(장관 박진)는 몽골과 희소금속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1.20.(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 조성사업」 착수식을 개최하였다.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 유관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참석하여 잠발 간바타르 몽골 광업중공업부 장관(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몽골 정부 대표단과 희소금속을 비롯한 핵심광물 분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올해 2월 몽골 총리 방한 계기 양국 간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개최한바, 양국은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몽골 내 희소금속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양자 및 다자 협력 현황과 연구개발(R&D) 협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몽골은 몰리브덴(생산량 세계 8위), 주석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되어 있고, 특히, 희토류가 다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 관계가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 조성사업」의 착수식에 참석한 이호현 실장은 축사에서 “본 사업을 통해 몽골은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한국은 국내 공급망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호현 실장은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외교부 등 우리정부 대표단은 몽측 대표단과 별도 업무 협의를 통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자 및 한-미-몽 등 다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이 실장은 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잠발 간바타르 장관과의 면담에서 몽골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지지 의사를 밝힌 데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끝까지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정대환 (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정주환 (044-203-5256)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	책임자	과 장	박세아 (02-2100-8192)
		담당자	사무관	윤재희 (02-2100-8196)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